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서체 연구*
-『금광명경』 권3과『유가사지론』 권20을 중심으로 -

유민호**

要約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석독구결인『금광명경』 권3과『유가사지론』 권20의 서체를 비교 대조하였다. 이 두 자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두 문헌의 서체의 관련성이 언급됐는데, 구체적으로『금광명경』 권3의 권수(卷首)인 제1장(낙장)과 제2장, 그리고 권말(卷末)인 제14장과 제15장의 석독구결은『유가사지론』과는 필체가 다르며,『금광명경』의 나머지 부분과도 필체가 다르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시기적으로는『금광명경』의 권수와 권말 부분의 구결자는『금광명경』 권3(3장~13장)과『유가사지론』 권20보다 좀 더 앞선 시기에 쓰여 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10년 2월 구결학회 겨울학술대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제목과 본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논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손환일 선생님, 장경준 선생님, 김지오 선생님 등의 큰 도움을 받았으며, 구결학회 학술대회에서 남풍현 선생님을 비롯하여 권인한 선생님, 박진호 선생님의 조언에도 힘입은 바 크다. 또한 영인본 자료 이용에 대해 조언해 주신 정재영 선생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큰 감사를 드린다. 여러 조언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문제점은 오로지 필자의 몫이다.

** 고려대 박사과정수료.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2단계 BK21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의 지원비를 받았음.

이러한 판단에는 『금광명경』 권3과 『유가사지론』 권20이 복장유물로 같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듯 보인다. 즉 같은 복장 유물로 부식의 정도가 비슷하다는 점, 구결자의 용례가 다른 부분과 달리 나타난다는 점 등이 서체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준 듯하다.

기존의 이러한 논의들 중에서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부분은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의 서체가 동일한지 여부와 『금광명경』의 권수와 권말 부분이 『금광명경』의 나머지 부분과 서체가 다른지 여부, 『금광명경』 구결의 기입자수 등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유가사지론』과 『금광명경』의 서체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가사지론』 구결의 서체는 예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형성을 띠고 있었던 반면에, 『금광명경』 구결의 서체는 자유롭고 기입자의 개성이 많이 담겨 있었다. 따라서 이 두 문헌의 구결은 서체의 동일성을 찾기 힘들었다. 아울러 『금광명경』의 권수와 권말 부분이 『금광명경』의 나머지 부분의 서체와 다르다고 한 선행연구에서의 언급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광명경』은 제3장부터 15장까지 서체의 변화가 심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도 있으나 '矣'와 '亦'의 서체를 통해서 봤을 때 정형성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구결의 서체는 개성이 다양한 서체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덧붙여서 『금광명경』 구결의 기입자는 한 명인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의 석독구결의 기입 시기의 선후는 본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연구에 시간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하기에 후고를 기대해 본다.

*핵심어: 석독구결(釋讀口訣), 금광명경(金光明經),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서체(書體), 필체(筆體), 구결자(口訣字), 결구법(結構法)

1. 머리말

본고는 고려시대 『금광명경』 권3과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의 서체[1]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인정돼 왔던 부분들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펴 보고자 한다. 『금광명경』 권3과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서체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남권희(1994, 1996, 1997ㄱ, 1997ㄴ, 1998, 2002) 등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권희(1996)에서는 '『금광명경』 권3'의 석독구결은 『유가사지론』 권20과 같은 사람에 의하여 씌어졌다고 하면서, 단 卷首와 卷末의 2장씩은 앞선 시기의 필사로 추정하고 있다. 남권희(1997ㄱ)에서는 『금광명경』이 『유가사지론』과 같이 나왔던 자료의 일부여서 구결의 필체가 같고 상단부의 훼손 현상도 마찬가지로 같다고 하였다. 아울러 남권희(1998)에서는 고려본 『금광명경』권 제3의 구결은 『유가사지론』과 같은 사람의 필체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전체에 걸쳐 서체의 경향은 구양순 체에 가깝고 紙質은 두꺼운 楮紙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13세기 초기에서 중기 사이에 인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판본에 나타난 각수의 이름에서 立省(제5장), 正(제6장), 正安(제7장), 昌(제8, 9장), 孝兼(제13장) 등이 발견되는 데, 이중 正安은 1238 – 1246년 사이에 ≪弘讚法華傳≫·≪禪門三假帖頌集, 1246 跋≫ 등 여러 경전의 간행에 각수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이 판본의 간행 시기는 거의 13세기 중엽임을 확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제1, 2장과 제14, 15장은 『유가사지론』의 구결과는 다른 體로 기입되어 있고 구결자의 용례 역시 다른 부분과 달리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처음의 인출이후 처음과 끝은 앞선 시기의 사람이 기록을 하였으며 그 상태로 『유가사지론』의 구결을 단 사람에게까지 전하여져 13세기 중엽이후의 어느 때 나머지가 베껴진 까닭에

1) 본고에서는 '필체'라는 용어 대신 '서체'를 사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선행연구 등에서 '필체'라는 용어를 쓴 부분에서는 그대로 '필체'를 쓰도록 한다.

본인이 직접 구결을 단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모본으로 하여 그대로 전사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금광명경』 권3과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의 필체는 동일하며 다만 『금광명경』 권3의 권수(卷首)인 제1장(낙장)과 제2장, 그리고 권말(卷末)인 제14장과 제15장의 석독구결은 『금광명경』의 나머지 부분과 다르며, 『유가사지론』과도 같지 않고, 시기적으로는 좀 더 앞선 시기에 씌어 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의 연관성은 필체가 동일한 것 외에도 복장 유물로 같이 발견되어서 부식의 정도가 비슷한 것, 구결자의 용례가 다른 부분과 달리 나타나는 점도 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남권희(1996, 1998) 등에서의 연구는 이후에 후행 연구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다. 이건식(1996)에서는 『합부금광명경』 권3의 석독구결은 『유가사지론』 석독구결과 함께 발견된 것이고 『유가사지론』의 吐를 기입한 필체와 동일한 필체로 吐가 기입된 자료여서 『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이 13세기 후반의 국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 이 자료도 적어도 13세기 후반의 국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으며 앞으로의 정밀한 연구에 따라서는 그 시기가 상대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였다. 정재영(1998)에서는 석독구결 자료인 『합부금광명경』권 제3은 남권희(1994)에 의해 소개된 자료이며 이 책은 권자본으로 전체가 15장으로 되어 있으며, 석독구결 자료인 『합부금광명경』권 제3은 제1장이 낙장이고 2장부터 11장까지는 상단 부분이 부식되었는데, 이 중에서 제2장부터 6장까지는 본문의 일부까지도 부식되어 본문 내용의 일부와 그곳에 기입된 吐를 알 수 없고 7장부터 11장까지는 상단 부분이 손상되긴 하였지만 본문 내용은 대체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 제2장과 14장, 15장 등은 다른 필체로 구결이 기입되어 있어 이 자료에 토를 기입한 사람이 적어도 두 사람 이상임을 알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아울러 장윤희(2004)에서도 남권희(1995, 2002: 631) 등

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의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의 석독구결 서체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합부금광명경』 권3	1장(낙장), 2장, 14장, 15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유가사지론』 권20		2장 ~ 32장
비고	『금광명경』 권3(3장~13장)과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보다 선대의 시기에 구결토를 기입한 것으로 추정.	『금광명경』 권3의 3장에서 13장까지의 구결자의 필체와 『유가사지론』 권20의 구결자의 필체는 동일하며, 구결토의 기입 시기는 13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

〈표1〉 『합부금광명경』 권3과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의 동일 필체 여부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의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의 서체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의 구결자들을 직접 비교, 대조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의 서체의 비교는 석독구결 사전에 등재된 65자의 구결자들 중에서 획수가 비교적 많고 복잡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획수가 많고 복잡한 것이 획수가 적고 간단한 것보다는 서체의 차이를 좀 더 잘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결자 'ㅅ'의 경우에 아래와 같이 획수가 2획으로 간단하여 서체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다.

구결자	『금광명경』 권3						
ㅅ	2-15	3-13	5-2	7-11	8-9	9-7	15-7
							
	『유가사지론』 권20						
	2-15	6-8	10-8	17-4	22-1	27-3	31-21
							

〈표2〉『금광명경』과『유가사지론』에서의 'ㅅ'의 서체

서체는 보통 획과 획의 연결에서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획수가 적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금광명경』과『유가사지론』에 출현 빈도가 높아야 구결자의 서체를 비교, 대조하기에 용이하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ᄌᆞ(져)', 'ᄀᆞᄆᆞᆺ(아곰)', '冬(ᄃᆞᆯ)', 'ᄅᆞ(리)', 'ᄆᆞᆫ(ㅁ)', '矢(디)', '支(디?)', 'ᄂᆞᄆᆞᆫ(ᄂᆞ로)' 등의 구결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다. 이들 구결자는 획수가 비교적 많아서 구결자의 필체를 비교적 잘 드러내 준다. 뿐만 아니라『금광명경』과『유가사지론』에 출현 빈도가 높아서 두 문헌에 나타나는 구결자의 필체의 비교에도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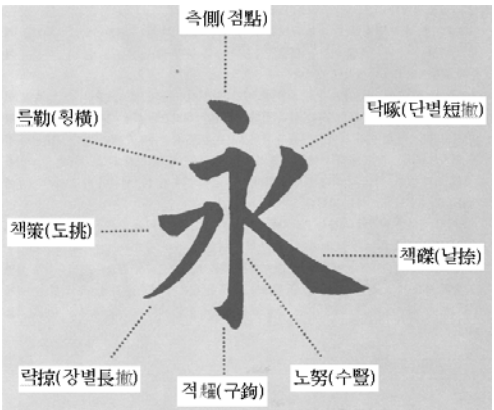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구결자는 구결 말뭉치[2]를 검색하여 문헌에서의 출전을 파악하고 영인본에서 직접 그 구결자들을 스캔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스캔한 구결자는 서체와 관련된 분석 방법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밝혀둔다.

2) 장경준 선생님의 배포 버전인 'sktot_2007_01_깜짝새'를 이용함.

2. 서체와 서법

2.1. 영자팔법(永字八法)

『금광명경』 권3과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의 서체를 비교하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서체와 관련된 개괄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서체 비교를 좀 더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서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영자팔법(永字八法)'이라 할 수 있다. 아래는 '영자팔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영자팔법(永字八法)[3]

영자팔법은 '영(永)'자의 각각의 획을 쓰기 위한 8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환일(2009)에서는 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손환일(2009)에 의하면 필법은 필획과 결구로 나누며, 필획법은 가로획법(勒法), 세로획법(努法), 갈고리법(趯法), 삐침법(掠法)이 있다고 하였다. 삐침법은 왼쪽위짧은삐침법(策法), 오른아래긴삐침법

3) 배옥영(2003)에서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옴.

(磔法), 오른위짧은삐침법(啄法), 왼아래긴삐침법(掠法) 등으로 크게 나누는데, 이러한 필획법과 관련하여 해서의 永字八法이 있고, 필법은 북조와 남조의 필법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황하 이북의 북방지역에서 유행한 북조법에서는 굵은 직선의 필획이 사용된 해서가 많은 반면 주로 강남지방을 중심으로 유행한 왕희지, 왕헌지 등과 같은 부류의 필법인 남조법은 가는 곡선의 필획을 사용한 행서나 초서가 많다고 하였다. 아울러 북조법은 왼쪽삐침이 오른쪽삐침보다 강조되어 결구가 왼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조법은 왼쪽삐침보다는 오른쪽삐침이 강조되는 점이 다르고 북조법은 가로획이 강조되는 반면, 남조법은 세로획이 강조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아래는 이를 정리한 표[4]이다.

	북조체 특징	남조체 특징
지역	대륙 북방의 낙양지역	대륙 남방의 강남지역
필획	왼쪽삐침강조, 가로획강조, 굵은 직선 필획	오른쪽삐침강조, 세로획강조, 가는 곡선필획
결구	정사각형, 마름모꼴 결구	갸름한 직사각형 결구
장법	상하좌우와 자간간격이 일정한 바둑판형태의 장법	자간이 상하는 좁고 좌우의 열은 넓은 세로열 형태의 장법
전래방법	묘지, 조상기 등 금석문	模刻, 書帖

〈표3〉 북조법과 남조법의 서체 비교

앞에서 나온 바와 같이 '영자팔법'의 필획에 있어서, 남조와 북조는 서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남조의 서법을 받아들이느냐 북조의 서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서체는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서법은 시대와 지역, 사람에 따라 특징적인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서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겠다. 즉 석독구결의 서체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구결자를 동일 인물이

4) 이 표는 손환일(2009)에서의 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기입했는지, 아니면 여러 명이 기입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2.2. 서법과 서체의 예

해서나 초서 뿐 아니라 구결에도 서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영자팔법에서 측(側, 點)을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측은 하나의 점이기에 그 서법이 간단할 것 같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방법이 몇 가지로 나뉜다.

	측(側)의 서법	쓰이는 한자	용례
향좌점(向左點)		立, 玄 등	
향우점(向右點)		心, 火 등	
직점(直點)		亠 등	

〈표4〉 영자팔법에서 '측(側)'의 서법[5)]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영자팔법(永字八法)' 중에 점에 해당하는 '측(側)'의 경우에도 다양한 서법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서체의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 즉 간단한 점의 경우에도 임의대로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쓰이는 위치에 따라 각각의 서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서법대자해』의 내용을 편집한 것임.

따라서 구결 서체의 경우에도 임의대로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서법에 맞게 글씨를 썼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은 구결과 관련된 중국의 서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결은 한자 초서 중에 일부를 가져오거나 전부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곧 구결 서체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결자와 관련되는 한자의 서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래는 이를 표로 만든 것이다.



〈표5〉 구결자와 관련된 서체의 예들[6]

위 표에서 '良'과 관련된 원나라의 조맹부(趙孟頫)의 서체를 보면 'ᄀ'의 서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아울러 '音'(조맹부), '爾'(손과정), '冬'(왕헌지), '入'(안진경), '齊'(색정), '支'(경사군비, 소식) 등의 서체에서 'ᄉᆞ', 'ᄭᅥ', 'ᄃᆞᆼ', '入', 'ᄌᆡ', '支' 등의 서체의 근원 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구결의 서체는 중국의 서예가들의 서체와 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구결자의 서체가 기입자의 임의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법 체계의 틀 속에서 나옴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6) 『서법대자해』 등에서 가져옴.

3. 『금광명경』 권3과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서체 비교

앞 장에서 서체는 서법에 따라 쓰여 지는 것임을 확인해 보았다. 또한 구결의 서체는 중국의 서예가들의 서체와 닿아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서체와 관련된 사항들을 참고하면서 『금광명경』 권3과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의 서체를 직접 비교하여 서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그 전에 먼저 구결자 '𠬜(리)'를 통해 석독구결 5종의 서체의 전반적 특징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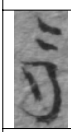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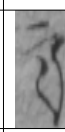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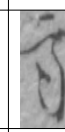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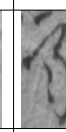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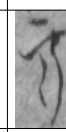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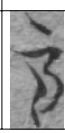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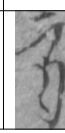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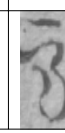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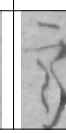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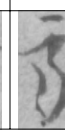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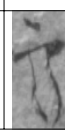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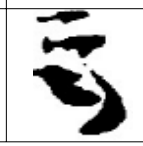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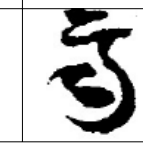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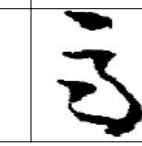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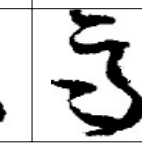
『화엄경소』 권35	01-03	08-19	12-03	16-17	20-03	25-11
						
『화엄경』 권14	02-06	08-15	10-23	13-01	18-14	19-16
						
『구역인왕경』 상	02-05	14-02	14-09	14-11	14-19	14-19
						
『금광명경』 권3	02-01	03-22	07-08	08-08	14-01	15-09
						
『유가사지론』 권20	04-07	09-01	15-02	23-23	27-01	32-03
						

〈표6〉 석독구결 5종의 '𠬜(리)'의 서체

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금광명경』 권3을 제외한 나머지 석독구결에서는 서체가 비교적 정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서법이 동일하며, 이는 기입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반면 『금광명경』의 서체는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구결자의 서체가 제각각이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서체의 차이가 심한 『금광명경』을 중심으로 『유가사지론』과의 서체의 비교, 대조를 해 나가려 한다. 그래서 『금광명경』의 2장, 3장, 14장, 15장과 『금광명경』의 나머지 장과 서체의 차이가 있는지, 아울러 『금광명경』의 나머지 장의 서체와 『유가사지론』의 서체의 공통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금광명경』의 기입자수는 몇 명인지도 확인해 볼 것이다.

3.1. ‘ 𞄀 (져)’의 서체

‘ 𞄀(져)’는 『금광명경』 권3의 ‘9장~12장’에서는 출현하지 않는다. 반면 『유가사지론』 권20에는 거의 빠짐없이 출현하고 있다. 『금광명경』에서는 총 71회 출현하는데, 각 장마다 한 두 예씩 추출하여 총 20개를 추출하였다. 『금광명경』은 서체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서체의 예를 보여주는 것들은 대부분 스캔하려고 하였다. 반면 『유가사지론』은 5개 정도의 예만 추출하였는데, 서체가 거의 예외 없이 정형성을 띠고 있어서 몇 개의 예만 가져왔다.

구결자	『금광명경』 권3									
𠂤	2-3	2-3	3-7	3-25	4-13	4-15	4-24	5-3	5-22	5-22
										
	6-21	7-14	13-15	14-1	14-4	14-6	14-18	15-1	15-6	15-8
										
	『유가사지론』 권20									
	10-18		15-9		19-3		25-20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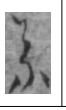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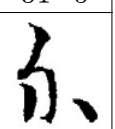
〈표7〉『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에서의 '(져)'의 서체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가사지론』의 서체는 결구의 정형성을 보이고 있다. 즉 필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입자가 한 명으로 보인다. 반면 『금광명경』에서는 결구의 정형성이 보이지 않는다. 즉 『금광명경』의 각 장에 나타나는 ''의 서체는 차이가 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금광명경』의 2장, 3장, 14장, 15장의 서체는 동일하지 않으며, 『금광명경』의 나머지 장도 서로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금광명경』의 서체를 2장, 3장, 14장, 15장의 서체와 나머지 장의 서체로 나누기 힘들다. 이를 통해서 『금광명경』의 각 장에 나타나는 ''의 서체와 『유가사지론』의 서체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금광명경』의 구결자의 기입자가 몇 명인지는 4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3.2. ‘ᄀᆞᄋᆞᆷ(아곰)’의 서체

‘ᄋᆞᆷ’은 『금광명경』에서 57회 출현하는데, 각 장마다 한 두 예를 추출하였다. 다만 ‘ᄋᆞᆷ’의 경우엔 단독 자형으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ᄀᆞᄋᆞᆷ’과 같이 연결형으로 나타나서 이를 스캔하였다. 『유가사지론』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5개 정도만 추출하였다. 이는 아래와 같다.

구결자	『금광명경』 권3									
ᄀᆞᄋᆞᆷ	2-7	2-13	2-24	3-12	4-15	5-20	8-3	14-3	15-2	15-4
										
	15-10	15-14								
										
	『유가사지론』 권20									
	3-8		10-6		15-2		20-11		31-5	
										

〈표8〉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에서의 ‘ᄀᆞᄋᆞᆷ’(아곰)’의 서체

위 표에서 『유가사지론』의 ‘ᄀᆞᄋᆞᆷ’의 경우에는 결구의 정형성이 잘 나타나 있다. 반면 『금광명경』에서는 필획의 두께가 각기 다르며 세로획과 갈고리법에 있어서도 각기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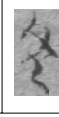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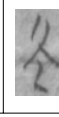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가사지론』에서 ‘ᄀᆞ’의 경우에 필획과 필획 사이의 마디가 두껍고 강하다. 그러나 『금광명경』에서는 ‘ᄀᆞ’의 경우에 필획과 필획 사이가 떨어져 있거나 부드러운 곡선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가사지론』과 『금광명경』의 서체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금광명경』의 2장(7행)과 15장(10행, 14행)에 나타나는 ''의 서체는 유사해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금광명경』의 2장과 15장의 서체가 동일하다는 서술과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2장(13행, 24행)과 3장(12행)에 나타나는 ''의 서체 또한 상호 유사성이 있고, 4장(15행), 5장(20행), 8장(3행), 14장(3행)의 ''의 서체 또한 서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서의 지적은 일관적으로 적용되기 힘들어 일반적인 설명이 되기 힘들다. 이에 대해 왜 그러면 『금광명경』에서 ''의 서체가 2장과 15장에서 동일한 예가 나오며, 2장과 3장의 ''의 서체가 동일하고, 4장, 5장, 8장, 14장의 ''의 서체가 동일한 예가 나오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이 물음에 대해 각각의 기입자가 달랐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4장, 5장, 8장, 14장은 한 명의 기입자가 구결자를 기입했고, 15장의 구결자는 2장을 기입했던 사람이 다시 구결을 기입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다른 구결자에서는 2장부터 15장까지 구결자의 서체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2장과 15장의 구결자의 서체가 다른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가설이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금광명경』의 권수와 권말의 구결자의 서체가 동일하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구결자의 경우에서는 적용되기 힘들다.

3.3. '()'의 서체

''은 『금광명경』에 29회 출현한다. 이 중에서 10개의 예를 추출하였다. 『유가사지론』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5개의 예를 추출하였다. 이는 아래와 같다.

구결자	『금광명경』 권3									
冬	2-5	3-12	3-14	5-10	9-10	10-1	13-6	13-7	13-23	15-10
										
	『유가사지론』 권20									
	4-18		8-18		16-13		22-1		31-17	
										

〈표9〉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에서의 '冬'(돌)'의 서체

위 표에서 『유가사지론』은 결구가 정형적인데 반해 『금광명경』에서는 결구가 부정형적이다. 구체적으로 『금광명경』에서는 필획이 가늘거나 두껍거나 하는 등 필획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는 반면에 『유가사지론』은 필획의 두께가 대체로 일정하다. 또한 하단의 두 점의 필획도 『유가사지론』은 비스듬한 직선에 가까운 반면 『금광명경』은 기울어진 'し'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유가사지론』과 『금광명경』의 서체는 동일하지 않으며 기입자도 각기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는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의 서체가 동일하다고 본 선행연구와는 다른 해석이다. 그리고 『금광명경』의 서체는 2장, 3장, 14장, 15장의 서체와 나머지 장의 서체로 크게 2갈래로 나누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扌(리)'의 서체

'扌'는 『금광명경』에서 72회 출현한다. 이 중에서 24개를 추출하였다. 『유가사지론』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5개만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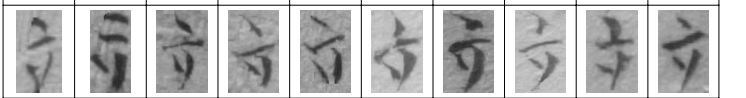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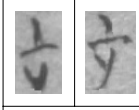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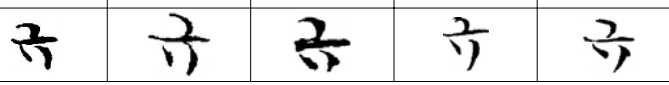
구결자	『금광명경』 권3									
𛅐	2-2	2-6	2-8	2-13	2-14	2-17	3-22	4-18	4-25	5-7
										
	5-8	6-23	7-3	7-5	7-8	7-10	7-11	7-15	7-19	7-25
										
	14-1	14-3	15-9	15-11						
										
	『유가사지론』 권20									
	4-7		9-1		15-2		23-23		32-3	
										

〈표10〉『금광명경』과『유가사지론』에서의 '𛅐'(리)'의 서체

『유가사지론』의 필획에서 '삐침' 부분은 거의 강조되지 않은 반면에 『금광명경』은 대체로 '삐침'의 획이 길고, '삐침'의 획이 처음은 두껍고 끝은 날카롭게 마무리가 되어 있다. 즉 두 문헌의 서체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다. 그래서 『유가사지론』과 『금광명경』의 서체는 다르며 기입자도 각기 다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금광명경』의 서체는 2장, 3장, 14장, 15장의 서체와 나머지 장의 서체로 크게 2갈래로 대비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3.5. ‘ㅁ(口)’의 서체

‘ㅁ’은 『금광명경』에 40회 출현한다. 이 중에서 12개를 추출하였다. 『유가사지론』은 5개를 스캔하였다.

<table>
<tr><td>구결자</td><td colspan="9">『금광명경』 권3</td></tr>
<tr><td rowspan="4">ㅁ</td><td>2-21</td><td>3-11</td><td>4-19</td><td>6-8</td><td>6-19</td><td>13-4</td><td>14-19</td><td>14-21</td><td>15-10</td><td>15-12</td></tr>
<tr><td></td></tr>
<tr><td>15-14</td><td>15-15</td><td colspan="8" rowspan="2"></td></tr>
<tr><td></td></tr>
<tr><td colspan="9">『유가사지론』 권20</td></tr>
<tr><td>7-14</td><td colspan="2">16-3</td><td colspan="2">25-3</td><td colspan="2">29-13</td><td colspan="2">31-18</td></tr>
<tr><td></td></tr>
</table>

〈표11〉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에서의 ‘ㅁ’(口)의 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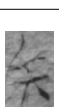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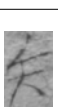
『유가사지론』의 ‘ㅁ’에서 점획은 앞에서 영자팔법의 ‘측(側)’의 서법을 논하는 부분에 의하면 ‘향좌점’이라 할 것이다. 다만 많이 구부러져 있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많이 굽은 ‘향좌점’이 『유가사지론』에서는 거의 일정하게 각 장마다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금광명경』에서는 ‘측(側)’의 필획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일관된 필획의 모습을 추출할 수 없다. 그래서 『유가사지론』과 『금광명경』은 서로 서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서체가 같다고 한 선행연구에서의 결론과는 다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덧붙여서 『금광명경』의 서체는 2장, 3장, 14장, 15장의 서체와 나머지 장의 서체로 이분

화되지 않는다.

3.6. '矢(디)'의 서체

'矢'는 『금광명경』에서 38회 출현한다. 이 중에서 28개를 추출하였다. 『유가사지론』은 5개를 추출하였다.

구결자	『금광명경』 권3									
矢	2-23	3-15	3-21	4-3	4-10	4-17	4-24	5-6	5-9	5-9
										
	5-10	5-11	5-12	5-12	5-14	5-15	5-15	5-18	5-19	5-21
										
	5-21	5-22	6-1	7-2	7-6	13-14	14-5	15-5		
										
	『유가사지론』 권20									
	5-20		12-12		20-2		26-3		3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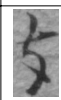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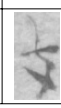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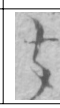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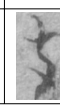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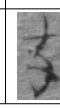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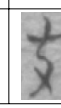
〈표12〉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에서의 '矢'(디)'의 서체

『유가사지론』의 '矢'의 서체에서 오른아래긴삐침(磔)이 왼아래긴삐침

(掠)보다 대체로 길다. 반면 『금광명경』에서는 오른아래긴삐침(磔)과 왼아래긴삐침(掠)이 길이가 비슷하거나 오른아래긴삐침(磔)이 길거나, 왼아래긴삐침(掠)이 길거나 하는 등 필획의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금광명경』의 가로획(勒)은 『유가사지론』의 가로획보다 필획이 비교적 길고 가늘다. 이를 통해서 '矢'의 서체는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이 같다고 할 수 없으며, 기입자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없겠다. 이러한 분석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와 다른 결론이다. 그리고 『금광명경』의 서체는 2장, 3장, 14장, 15장의 서체와 나머지 장의 서체로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3.7. '支(디?)'의 서체

'支'는 『금광명경』에서 35회 출현한다. 이 중에서 10개를 추출하였다. 『유가사지론』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5개를 추출하였다.

구결자	『금광명경』 권3									
	2-1	2-6	4-22	7-14	13-14	13-22	13-22	14-15	15-14	15-15
支										
	『유가사지론』 권20									
	7-6		13-2		19-12		26-14		32-4	
										

〈표13〉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에서의 '支(디?)'의 서체

『유가사지론』에서 '支'의 서체는 송나라의 소식(蘇軾)의 서체와 유사

한 면이 있다. 의연(意連)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의연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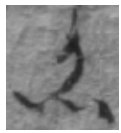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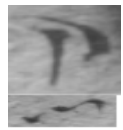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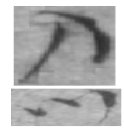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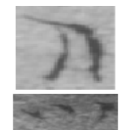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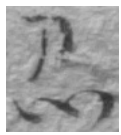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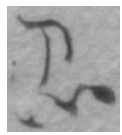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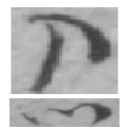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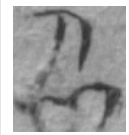
구결자	『유가사지론』 권20 석독구결		
支	13-2	19-12	26-14
			
	- 왼쪽아래긴삐침과 오른쪽아래긴삐침을 연결해 주는 획이 보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연(意連)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표14〉『유가사지론』의 '支'에 나타나는 의연

위 표에서와 같이 의연이 예상되는 『유가사지론』과는 달리 『금광명경』에서는 '支'의 서체에 의연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서체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곧 구결의 기입자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체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분석은 역시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의 서체가 동일하다고 한 선행연구와는 다른 분석이라 할 것이다. 또한 『금광명경』의 서체는 2장, 3장, 14장, 15장의 서체와 나머지 장의 서체로 나누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8. 'ㅅㅁ(ᄃᆞ로)'의 서체

구결자의 연결형인 'ㅅㅁ'는 필획과 필획의 연결에 중점을 두고 고찰을 하였다. 'ㅅㅁ'는 『금광명경』에서는 10개를 추출하였고, 『유가사지론』에서는 5개를 추출하였다. 이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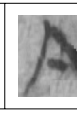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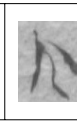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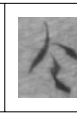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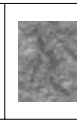
구결자	『금광명경』 권3				
ᄉᆞᄆᆞ	2-1	3-4	4-9, 4-23	5-8, 5-5	6-8
					
	7-1	8-17	9-8, 9-2	13-7	15-11
					
	『유가사지론』 권20				
	3-16	10-5	16-20	22-1	28-1
					

〈표15〉『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에서의 'ᄉᆞᄆᆞ(ᄃᆞ로)'의 서체

『유가사지론』의 'ᄉᆞᄆᆞ'의 서체는 정형성을 띠고 있다. 'ᄉᆞᄆᆞ'의 경우에는 『금광명경』의 서체도 비교적 정형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유가사지론』과 『금광명경』의 'ᄉᆞᄆᆞ'의 서체는 공통점이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ᄉᆞ'의 경우에 왼아래긴삐침획이 『금광명경』에서는 대체로 긴데 반해 『유가사지론』은 오른아래긴삐침보다 짧다. 또한 'ᄆᆞ'의 경우 『금광명경』에서는세 번째 점획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유가사지론』은 대체로 직점(直點)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유가사지론』과 『금광명경』의 서체는 동일하지 않으며, 기입자도 다르다 하겠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의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덧붙이면 『금광명경』의 서체는 2장, 3장, 14장, 15장의 서체와 나머지

장의 서체로 크게 2갈래로 나누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체의 측면에서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의 서체를 구결자를 스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런데 구결자의 쓰임에 있어서도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즉 『금광명경』에서는 구결자 '令'가 '-리-'와 '히-'를 동시에 나타내지만 『유가사지론』에서는 구결자 '令'는 '-리-'만 나타내고, '히-'는 '𠂉'가 나타낸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7] 이는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令'(리)		'令'(히)	
『금광명경』 권3	2-22		3-8	
	五ㅣㅅㅁノ令ロンナ尸入ㄱ		成熟令ㅣ	
	3-7		4-24	
	安樂止息ノ令七{之}		種令ㅣ 爲人ンヲ	
	4-7		5-3	
	諸法ナノ令七{之}		攝受ンヲ令ㅣノ尸ム	
	5-8		6-17	
	波羅蜜義ㅣㅅンロノ令ロンナ王尸入ㄱ		怖畏令ㅣトノㄱ入	

7) 이는 2010년 2월 구결학회 겨울학술대회에서 박진호 선생님의 지적과 익명의 심사자 중 한 분의 조언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7-2		8-9	
	摧伏ソ口今 無丁		不八今刂今七	
	8-9		13-11	
	不八今刂今七 智乙		飽滿今刂七亻ソ尸入皿	
	13-9		14-18	
	不淨品土ノ今十		成熟今刂ヒ尸土	
	15-1		15-13	
	逆[去叱ニ干?]ニ今七道丁		消除今刂分	

〈표16〉『금광명경』에서의 '今'의 쓰임과 서체

	'今'(리)		'𠂉'(희)	
『유가사지론』 권20	2-9		2-9	
	證得ソ今七		作𠂉刂尸	
	8-1		7-14	
	修習對治刂丨ノ今口		淸淨𠂉刂	
	12-3		9-2	
	七法刂丨ノ今口		作𠂉刂尸	

	17-5		14-20	
	毘奈耶ㅗノ仝七		不ハ仝刂尸入冊	
	22-23		15-2	
	五因刂丨ノ仝口		證仝刂ナ牙分	
	27-10		24-6	
	{爲}多諸思擇刂丨ノ仝口		安住仝刂下	
	30-21		29-15	
	依ノ仝七		修得圓滿仝刂分	

〈표17〉『유가사지론』에서의 '仝'와 '仌'의 쓰임과 서체

위 표에서 『유가사지론』의 '仝'와 '仌'의 필획은 차이를 보인다. 즉 '仝'의 하단의 두 점획은 마치 'ㄴ'과 비슷하지만, '仌'의 하단의 점획은 단지 하나의 점획임을 보여준다.

『금광명경』의 3장~13장의 석독구결 기입자와 『유가사지론』의 석독구결의 기입자가 선행연구에서의 지적대로 동일하다면 왜 『금광명경』에서는 '仝'가 '-리-'와 '히-'를 동시에 나타내는데, 『유가사지론』에서는 '仝'(-리-)와 '仌'(히-)가 각각 '-리-'와 '히-'를 나누어 표기하는지 설명하기 힘들다.

지금까지 『유가사지론』의 서체와 『금광명경』의 서체를 구결자를 스

캔하여 비교, 대조한 결과를 표로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금광명경』	『유가사지론』
의 결구 양상	부정형적	정형적
의 결구 양상	부정형적	정형적
의 결구 양상	부정형적	정형적
의 결구 양상	부정형적	정형적
의 결구 양상	부정형적	정형적
의 결구 양상	비교적 정형적	정형적
의 결구 양상	비교적 정형적	정형적
의 결구 양상	비교적 정형적	정형적

〈표18〉『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의 구결자의 결구 양상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서체의 동일 여부를 밝혀줄 구결자의 결구 양상에서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은 대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금광명경』은 구결자의 결구가 '부정형적'인 경우가 많은데 비해 『유가사지론』은 거의 예외 없이 '정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두 문헌의 구결 서체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기입자도 동일인물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분석은 선행연구에서 『금광명경』과 『유가사지론』의 서체는 같고, 기입자도 동일하다는 분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금광명경』의 구결자의 서체는 부정형성을 띠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는 구결자의 기입자가 여러 명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금광명경』의 구결자의 서체가 부정형성을 띠는 것은 기입자가 여러 명이라기보다는 기입자의 서체의 개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광명경』의 경우에 비교

적 정형성을 띠고 있는 구결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금광명경』의 석독 구결 기입자가 몇 명인지를 밝혀주는 단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4. 『금광명경』 권3의 석독구결 기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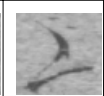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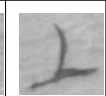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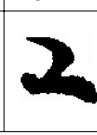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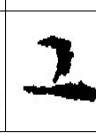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금광명경』 권3의 권수(제1장-낙장, 제2장)와 권말(14장, 15장)은 『금광명경』의 나머지 부분과는 서체가 다르며 이를 근거로 기입자가 2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矣'와 '亠'의 서체를 통해 『금광명경』의 권수와 권말 부분, 그리고 나머지 장은 모두 동일인이 기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우선 앞에서 살펴 본 '矣'의 서체를 다시 한번 보기로 한다.

구결자	『금광명경』 권3									
矣	2-23	3-15	3-21	4-3	4-10	4-17	4-24	5-6	5-9	5-9
										
	5-10	5-11	5-12	5-12	5-14	5-15	5-15	5-18	5-19	5-21
										
	5-21	5-22	6-1	7-2	7-6	13-14	14-5	15-5		
										

〈표19〉 『금광명경』에서의 '矣(디)'의 서체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금광명경』의 권수, 권말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서 '矢'의 서체가 같다는 것이다. 이는 결구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왼아래긴삐침획은 점점 가늘어져 날카롭게 획이 마무리하고 있으며, 반면 오른아래긴삐침획은 점점 획이 두꺼워져 마지막 부분이 둥글게 마무리되고 있다. 이는 2장부터 15장까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위의 첫 번째 가로획도 대체로 두 번째 가로획보다 길다. 이는 두 번째 가로획이 첫 번째 가로획보다 더 길었던 『유가사지론』과 비교해 보면 '矢'의 결구에 있어서의 『금광명경』의 서체적 특징이라 할 것이다. 즉 이는 곧 서체가 동일하다는 것이며, 기입자가 한 명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또한 『금광명경』에서 구결자 '亽'도 서체의 동일함을 보여준다. 이를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구결자	『금광명경』 권3						
亽	2-20	3-24	4-12	5-11	6-11	7-7	8-17
							
	9-9	10-19	11-16	12-10	13-21	14-15	15-12
							
	『유가사지론』 권20						
	2-1	8-8	15-16	22-10	25-7	28-14	31-21
							

〈표20〉 『금광명경』, 『유가사지론』에서의 '亽'의 서체

위 표에서 ''의 경우에 『금광명경』에서의 서체는 세로의 필획이 왼쪽으로 45도 정도 기울어 진 다음에 수직으로 내려오며, 가로의 필획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올라가 있다. 반면 『유가사지론』에서는 세로의 필획이 매우 심하게 굽어져 있으며 가로의 필획은 비교적 수평하다. 위 표에 나타난 『금광명경』 2장에서 15장까지의 ''의 서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의 서체가 정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결자의 기입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한다 하겠다. 이는 『금광명경』의 권수와 권말 부분이, 『금광명경』의 나머지 장의 기입자와 다르다고 한 선행연구에서의 지적과는 다르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금광명경』의 권수와 권말에서의 서체는 나머지 부분과 달라 기입자가 다르다고 한 선행연구는 수정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와 ''가 2장부터 15장까지 결구의 양상이 정형성을 띠는 것은 서법이 일정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곧 기입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왜 다른 구결자에 있어서는 결구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수천(2005)의 논의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천(2005)에서는 아래와 같이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聖住寺朗慧和尙白月葆光塔碑)'[8]에서 동일자를 분류하였는데, 이를 통해 『금광명경』의 구결자의 서체의 다양성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8) 충남 보령시의 성주사터에 남아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승려 낭혜화상 무염(無染)의 탑비로 국보 제8호로 지정돼 있다. 낭혜화상은 무열왕의 8세손이다.

耳	
昌	
緣	

〈표21〉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의 동일자 분류

김수천(2005)에서는 위의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최언위 글씨)의 동일자 분류와 관련하여 네 개의 '耳'자는 공통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각각이며 특히 괴팍할 정도로 거칠게 보이는 두 번째 耳자는 최언위의 글씨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구양순, 구양통, 안진경, 최치원 중에 그 어느 글씨에도 속해 있지 않는데, 정상적인 글씨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글씨를 쓴 사람이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昌' 역시 위의 '耳'자처럼 아주 의외적이고 해학적인데, 이러한 엉뚱한 형태는 해서의 역사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이와 같은 역사다리꼴의 글씨는 고대 서예사에서 주로 등장하는 원시적 표현

기법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상나라 甲骨文과 金文, 고구려 '광개토왕비'와 신라 古碑에는 이러한 역사다리꼴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緣'의 경우에도 날개를 퍼덕이는 새와도 같이 글씨에서 動勢感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이 같은 생명감은 규칙의 일탈에 그 해답이 있다면서 규칙을 중시하는 唐楷에서는 이 같은 신명감이 나오기 힘들어 '緣'자의 경우에 어떤 고전 서예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최언위의 독창적인 조형감을 표현한 글씨임에 틀림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聖住寺郎慧和尙白月葆光塔碑)'에 나오는 글씨들을 분석해 보면 그것이 한 사람에 의해 쓰여 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표현이 다양한데, 이렇게 동일자를 각각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최언위가 서예를 대하는 심미적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하면서 서예에 있어서 변화의 미학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불변의 원칙[9]이이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김수천(2005)에서의 논의는 『금광명경』 권3의 구결의 서체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즉 구결의 서체가 매우 다양하게 나

9) "만일 획의 배열이 비슷한 것이 마치 산가지 같고, 상하가 方整하고 전후가 가지런하다면 이것은 書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점획만을 얻은 것일 뿐이다. 매 한 글자를 쓸 때마다 다양한 서체가 모두 들어가게 해야 한다. 만약 한 점의 서예를 쓸 때에는 반드시 글자마다 의미가 달라야 하며 서로 같게 쓰지 말아야 한다."[왕희지, 『書論』].

"글씨는 예서가 흥성함에 이르면서 대전의 고법이 크게 무너지게 되었다. 전주는 글자형태에 따라서 大小를 자유자재로 발휘하였으므로 만물의 표현을 다양하게 알아야 운필의 생동감이 원만하게 갖추어져 각각 스스로 만족하게 된다. 그런데 예서에서는 처음으로 파책을 만들고 빠른 필세로 표현하게 되어 三代의 법이 없어지게 되었다. 구양순, 우세남, 저수량, 안진경, 유공권 등은 모두 대소변화가 없이 한결같은 필법으로 쓰면서 안배와 공교에 힘을 낭비하였으니 어찌 능히 세상에 이름을 세울 수 있겠는가?"[송나라 미불(米芾, 1051~1107)].

– 김수천(2004)에서 재인용.

타나는 것은 글씨에 생명감을 불어넣기 위한 규칙의 일탈일 것으로 해석된다. 『금광명경』에도 정형화된 서체가 보이는데, 이는 곧 구결의 기입자가 정형화된 서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서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심미적인 이유가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예로서 『금광명경』 권3의 '入ᄉᆞᆷ'의 서체를 들 수 있겠다. 아래는 앞에서도 나오는 『금광명경』 권3과 『유가사지론』 권20에 나오는 '入ᄉᆞᆷ'의 서체다.

入 ᄉᆞᆷ	『금광명경』 권3	7-1	9-8, 9-2
			
	『유가사지론』 권20	10-5	16-20
			

<표22> '入ᄉᆞᆷ'의 서체

『금광명경』에서 'ᄉᆞᆷ'의 맨 오른쪽 마지막 점획은 『유가사지론』에서 'ᄉᆞᆷ'의 맨 오른쪽 마지막 필획에 비해 부드러운 굴곡으로 이루어진 유려한 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금광명경』의 구결을 기입한 사람의 서예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즉 실력이 미치지 못해서 구결자의 서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듯이 구결자를 기입했던 사람의 개성으로 인해 서체가 다양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면 『금광명경』에서 보이는 'ᄒᆞ'의 서체는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의 서체와 같이 해학적인 모습이 보인다.

5. 맺음말

선행연구에서 『금광명경』 권3의 권수와 권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장과 『유가사지론』 권20의 서체는 동일하며, 따라서 기입자가 동일하다는 추정은 구결자를 직접 비교 대조해 본 결과 사실과 달라 보인다. 즉 『금광명경』 권3의 권수와 권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장과 『유가사지론』 권20의 서체는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금광명경』 권3의 권수와 권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장의 구결자를 기입한 사람과 『유가사지론』 권20의 구결자를 기입한 사람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광명경』 권3의 권수와 권말 부분의 구결 기입자와 『금광명경』 권3의 나머지 부분의 구결 기입자가 다르다고 한 선행연구에서의 주장은 ''와 ''의 서체가 2장부터 15장까지 결구의 모습이 일정하게 나타나 동일인이 구결을 입력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사실과 맞지 않아 보인다. 다만 ''와 ''를 제외한 구결자의 서체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구결자를 기입했던 사람의 다양성을 나타나고자 했던 개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금광명경』 권3과 『유가사지론』 권20의 구결의 서체를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구결 기입 시기의 선후를 논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후속연구에서 면밀한 연구결과가 뒷받침된 후에야 판단할 수 있기에 후일을 기약해 본다.

參考文獻

김수천(2002), 「5·6세기 한·중 서예사 자료비교를 통한 한국서예의 정체성 모색」, 『서지학연구』 23.

김수천(2004), 「흥덕사본 '직지'의 서체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9.

김수천(2005), 「최언위 '성주사지낭혜화상비'의 서체미」, 『서지학연구』 31.
김은미(2008), 「조선시대 문서 위조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박사논문.
南權熙(1994), 「고려 석독구결 자료 금광명경 권3의 소개」, 구결학회 월례강독회(11월).
南權熙(1996), 「高麗 口訣資料≪大方廣佛華嚴經≫ 卷題十四의 書誌的 分析」, 『口訣硏究』1.
南權熙(1997ㄱ), 「차자 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제7권 제4호.
南權熙(1997ㄴ), 「≪大方廣佛華嚴經疏(卷三十五)≫高麗 口訣本에 대한 書誌的分析」, 『韓國傳統文化硏究』 第12輯.
南權熙(1998), 「高麗 口訣本 <(合部)金光明經> 卷3에 관한 書誌的 考察」, 『書誌學硏究』 第15輯.
南權熙(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배옥영(2003), 『서예 이론과 실기』, 서울: 도서출판 다운샘.
손환일(2005), 「발해 기와 명문의 서체」, 고구려연구 19, 고구려발해학회.
손환일(2009), 「百濟 彌勒寺址 石塔 舍利奉安記와 金丁銘文의 書體」, 『신라사학보』 16호.
심영환(2008), 『조선시대 고문서 초서체 연구』, 서울: 소와당.
양피운 외(1985), 『중국서법대사전』, 서울: 미술문화원.
오국진(1997), 「석가탑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필체로 본 간행연대 규명」, 『고인쇄문화』4, 청주 고인쇄박물관.
이건식(1996),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조사에 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장윤희(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구결연구 12.
정재영(1998), 「합부금광명경(권3)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3.
황선엽·이전경·하귀녀 외 7인(2009), 『석독구결사전』, 서울: 박문사.
許煦(1988), 『書藝論』, 서울: 고시원.
邱振中(치우쩐중 2007, 김희정 譯), 『필법(筆法)과 장법(章法)』, 서울: 도서출판 다운샘.
증상문·황문학·유효도 편(1999), 『書法大字海』, 하이커우: 해남출판사.

[142-765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2동 주공아파트 508동 306호]
E-mail: yuwin21@hanmail.net
접수일자: 2010. 05. 30.
심사일자: 2010. 06. 28.
게재결정: 2010. 07. 16.

A study on calligraphic style of Seokdok Gugyol in Koryo Dynasty

Yu, Min-ho

The current study checked and compared calligraphic style of *Geumgwang Myeonggyeong* volume 3, Seokdok Gugyol in Koryo Dynasty with that of *Yugasajiron* volume 20. In the precedent study on these two materials their association was mentioned, and concretely, it is mentioned that Seokdok Gugyol of chapter 1(missing pages) and chapter 2 which are the book head of *Geumgwang Myeonggyeong* volume 3, and chapter 14 and 15 which are the end of the book, is the same as *Yugasajiron* in calligraphic style, but they are different from the rest of *Geumgwang Myeonggyeong* in calligraphic style.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the periods when they were written, it is defined that Gugyolja of the head and end parts of *Geumgwang Myeonggyeong* was written a bit earlier than chapter 3~13 of it and *Yugasajiron*.

It seems that in this judgment the fact *Geumgwang Myeonggyeong* volume 3 and *Yugasajiron* volume 20 were found as costume relics played a significant role. Namely, it seems that the sameness of this calligraphic style was affected in that they are the same costume relics and the level of their corrosion is similar, and the example of Gugyolja appears to be different from other parts etc.

Among these existing discussions, the parts examined intensively in this paper involve whether the calligraphic style of *Geumgwang Myeonggyeong* and *Yugasajiron* is the same one, and whether the volume head and end part of the former have different

calligraphic style from its rest, and accordingly, we were to estimate how many writers were for Gugyolja of *Geumgwang Myeonggyeong*.

There are a few things we could find out through this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alligraphic style of *Yugasajiron* and *Geumgwang Myeonggyeong* is not identical. While the calligraphic style of Gugyolja of *Yugasajiron* was too typical to have any exception, that of Gugyolja of *Geumgwang Myeonggyeong* was free and contained personalities of writers a lot. Therefore, it was difficult to find the commonness of the two in calligraphic style. Besides, it was confirmed that the mention of the precedent study that the volume head and end parts of *Geumgwang Myeonggyeong* have different calligraphic style from its rest parts, is not true. It is possible to define this as change in the calligraphic style is sharp from chapter 3 to chapter 15 of *Geumgwang Myeonggyeong* but the calligraphic style of '矣', '亦' indicates its consistency from chapter 3 to chapter so it is impossible to say the calligraphic style is the same, and in addition, it is defined that the writer of Gugyolja of *Geumgwang Myeonggyeong* was one person.

Finally, in this study it was impossible to fond out the order of the period of Seokdok Gugyol regarding which one is previous among *Geumgwang Myeonggyeong* and *Yugasajiron*, and since time and efforts for this part are required more, we expect the future studies.

Key words : *Seokdok Gugyol*, *GeumgwangMyeonggyeong*, *Yugasajiron*, calligraphic style, handwriting, *Gugyulja*, *Gyulgu* method